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미란

2007년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 태 수

김 미 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 년 8 월

김미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년 8 월

<국문초록>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미 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비합리적 신념은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비합리적 신념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성별 차이가 있는가?
5.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계열별, 학년별 차이가 있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4년제 대학생 397명을 대상으로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그 정도를 측정하였고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치,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합리적 신념을 높게 지각하는 대학생들은 진로준비행동이 적어졌으며 그 하위요인 중에서도 문제회피나 비난경향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낮아졌다. 즉, 어려움이나 책임을 피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두렵거나 어려운 일을 지나치게 피하려는 학생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더욱 적어진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많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높아진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본 논문은 200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의 모든 하위영역 중에서도 자기평가와 직업정보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문제 해결신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대학생들은 많이 가질수록 그들의 진로에 대해 미리 준비행동하고 맞서는 자세가 좀더 활동적이다. 기존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구성들이 ‘지피지기면 백전불낙’이란 말과 같이 자기탐색과 직업정보탐색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같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꼭 필요한 학습, 지도 과제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비합리적 신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는 부적 영향을 주지만 자기효능감에 대해 모든 하위변인이 부적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 그중 완벽한 문제해결에서는 정적인 상관을 보여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 자신들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행동계획, 즉 당면의 문제를 비난하면서 회피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의사결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진로준비행동이 더 나은 진로성숙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남과 여 성별에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비합리적 신념인 경우 여학생이 더 높게 지각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남학생들이 많다. 이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비효율적인 정서를 함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진로준비행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위한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이 적극성들을 볼 수 있다. 각 대학교에서는 졸업을 막바지에 둔 4학년만을 위한 진로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별 단계에 맞는 진로지도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 대학생이 좀더 합리적으로 진로를 탐색 결정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을 고려하여 진로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각시키고 이를 위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및 가설	3
II. 이론적 배경	5
1. 비합리적 신념과 역기능적 사고	5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과 형성	11
3. 진로준비행동의 개념과 형성	15
III. 연구의 방법	17
1. 연구대상	17
2. 검사도구	18
3. 자료처리	20
IV. 연구결과 및 해석	21
V. 요약, 결론 및 제언	35
1. 요약	35
2. 결론	42
3. 제언	44
참고문헌	45
Abstract	49
부 록	52

표 목 차

<표Ⅲ- 1> 연구대상	17
<표Ⅲ- 2> 비합리적 신념 검사지 구성	18
<표Ⅲ-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지 구성	19
<표Ⅳ- 1>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21
<표Ⅳ- 2>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별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분석	22
<표Ⅳ- 3>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회귀분석	23
<표Ⅳ-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분석	24
<표Ⅳ-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회귀분석	25
<표Ⅳ- 6>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별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27
<표Ⅳ- 7>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회귀분석	28
<표Ⅳ- 8> 비합리적 신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29
<표Ⅳ- 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29
<표Ⅳ-10> 비합리적 신념의 성별 차이분석	30
<표Ⅳ-1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성별 차이분석	32
<표Ⅳ-12> 진로준비행동의 성별 차이분석	32
<표Ⅳ-13> 비합리적 신념의 학년별 차이분석	33
<표Ⅳ-1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학년별 차이분석	34
<표Ⅳ-15> 진로준비행동의 학년별 차이분석	3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 및 장래희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기보다 학교 서열 및 합격위주의 대학 진학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전공과 적성간의 불일치 및 불투명한 취업전망은 취업에 관한 진로 불안 등의 심리상태로 연결되어, 전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거나 군 입대나 휴학 등을 선택하는 등의 진로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의 휴학율을 보면 4년제 대학교인 경우 31.9%, 2년제 대학인 경우 40.9%로 이와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3). 또한, 「청년패널조사」(중앙고용정보원, 2003)에서는 정규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는 직업세계 진입과정과 첫 일자리 이후 직업세계 정착과정에서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미취업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첫 일자리에 이행확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노동시장 이행기간의 장기화가 청년층 노동력의 유희화를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실패에 대한 공포, 모든 일에 완벽하려는 욕구, 조급한 결정, 만족할 수 없는 자기기대, 선택에 대한 두려움 등의 불합리한 신념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은 자신의 성숙을 방해하거나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로문제와 관련한 긍정적인 자기신뢰감을 증진시켜 주는 방법을 적극 채택함으로써 진로상담 개발과 진로지도의 실제에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기 믿음과 자신감의 문제에 특별히 주목하는 연구 분야가 바로 자기효능감이다.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서 행동의 선택, 수행 그리고 지속성 등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Lent와 Hackett(1987)는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을 이해하는데서 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후에 수행되었던 진로자기효능감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진로자기효능감이 특정학문분야, 전공 및 직업의 선택, 수학수행, 그리고 진로의사결정과 같은 영역에서 결정적인 예언력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남순, 배종훈, 1998, 재인용).

이기학(1997)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선택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주요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선택했든지 아니면 부모, 교사, 친구, 선배의 권유나 또는 각종 매체를 통한 정보입수와 같은 주위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선택한 것인지 간에 현재 자신의 진로 및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직업이나 진로의 방향, 직업수행 능력, 준비의 적절성 등에 관한 자기 확신 정도가 대단히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특성은 대학을 졸업하고 구체적인 일의 세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 집단에서 지속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지도 및 상담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는 부분이다. 효율적인 직업 선택과 만족스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한 직업세계에서의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이기학, 이학주, 2000).

또한, 개인자신이 지닌 행동적 특성이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욱 진로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은경(2001)은 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 남녀에 따른 진로선택과정에서의 문제요인을 비교한 결과 진로발달 과정이 남녀간에 서로 차이가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개인내적 요인보다는 가족과 직업과의 갈등요인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진로문제를 접근 할 때는 성(性)차와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 관련성을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적인 진로지도 내에서 대학생들의 진로탐색과정에서 방해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알아보고 자신 능력에 대한 신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진로탐색연구와 진로상담에 도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비합리적 신념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처럼 긍정적인 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비합리적 신념은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비합리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학년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와 관련된 연구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생들의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수준은 낮을 것이다.

가설 2.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수준은 높을 것이다.

가설 3.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비합리적 신념은 떨어질 것이다.

가설 4.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주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대학생들의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성(性)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대학생들의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학년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비합리적 신념과 역기능적 사고

1) 비합리적 신념

Ellis(1962)는 인간이 합리적 사고를 할 수도 있고 비합리적 즉 왜곡된 사고를 할 수도 있는 잠재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스트레스 상황 자체가 정서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지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의 오류에 의해 정서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인지적 오류를 비합리적 신념(Irrational Belief)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비합리적 경향성을 사람들은 타고 난다고 하였다(김현국, 2003, 재인용).

인간은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스스로 다짐하는 자기 말을 배우게 되는데, 만일 이 자기 말이 비합리적이고 패배적이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비합리적 사고나 말은 평소에 반복해서 과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자동적 사고이고 확산적으로 나타난다고 본다(이장호, 1986).

즉 비합리적 신념은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건전한 인간 행동을 지속하는데 지장을 일으키는 비실제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고나 신념을 말하는데, 주로 개인의 세상, 인생, 자기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절대주의적, 완벽주의적, 융통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신념들로 자기파괴적, 독단적, 이기적, 비현실적, 모순적이며 과장되고 일관성이 없다.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은 처음에는 아동기 동안의 중요 타인으

로부터 학습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스스로 창조하기도 한다(Corey, 1991/1996).

인간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정서적인 문제는 비합리적 사고와 이러한 비합리적 사고를 낳게 하는 비합리적 신념체계에 의해 일어난다고 믿고 있다. 인간은 각기 다른 가치나 목표의 달성을 도와주는 사고, 감정, 행동은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러나 가치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이형득외, 1992).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연구 초기에는 정서상의 문제를 매개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행동상의 문제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새롭게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Ellis, 1995). 즉, 정서와 사고, 그리고 행동은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합리적 정서 치료에서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로 이름을 바꾸어 사고, 감정, 행동이 통합되고 전체적인 과정이라는 관점을 가진다(Ellis, 1999). 이에 비합리적 신념은 행동상의 문제를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Abrams & Ellis, 1994).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최선의 상태이기를 바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강한 생득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이를 배제하려는 강력한 노력이 있을 때에만 바뀔 수 있다(Ellis와 Harper, 1975/1993). 또한 인간은 사실을 왜곡시키고 불필요한 정서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신념을 스스로 만들어 그 신념에 따라 자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Ellis와 Grieger(1979)에 의하면 아동이 비합리적 신념을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혼란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가정적, 사회 문화적 영향력 때문만은 아니다. 인간의 사고가 자기 자신에게 중얼거리는 단어, 문구,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은 독특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므로, 아동 초기부터 사고와 지각과 감정을 단어, 문구, 문장의 형태로 형성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 성인기에 이를 즈음에는 대부분의 중요한 생각들이 자문자답하거나 혹은 내재화된 문장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Ellis(1962)는 서구 문화권을 중심으로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비합리적 신념을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문화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하였으며(이형득, 1989), 가

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다음의 10가지를 들어볼 수 있다(손경희, 2003, 재인용).

① 인정에 대한 욕구(Demand For Approval)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념이다. ② 개인적 완벽성(Personal Perfection)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게 유능하며 적절하게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것은 누구나 가지기 쉬운 생각이지만 합리적이지 못하다. ③ 비난 경향성(Blame Proneness)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나쁘고 야비하며 비열한 사람이며, 이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는 선악판단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과 그것이 인간의 비합리적인 편견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 ④ 파국화(Catastrophizing)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은 끔찍스럽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믿음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될 수가 없으며 간혹 욕구가 좌절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므로 그러한 믿음은 비합리적이다. ⑤ 정서적 무책임감(Emotional Irresponsibility) 인간의 불행은 외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며 그로 말미암은 슬픔이나 불안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어쩔 수 없다는 믿음이다. 대부분의 장애는 외적 조건보다 심리적인 경우가 많다. ⑥ 과잉불안염려(Anxious Overconcern) 어떤 일이 위험하고 두렵게 느껴질 때에는 그것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다. ⑦ 문제회피(Problem Avoidance) 자신은 아무 수고나 노력 없이 무사안일의 자세로 있으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어려운 일은 회피하는 것이 좋다는 믿음이다. ⑧ 의존성(Dependency)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야 하며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더 강한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믿음이다. 사람은 어느 정도는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으나 강한 의존심은 독립성, 개체성, 자기표현의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며 의존성은 더 큰 의존성과 학습의 실패와 정서적 불안을 유발한다. ⑨ 무기력(Helplessness) 자신의 과거는 중요한 것으로 남아있고, 그 중 어떤 것은 지금도 자신의 감정을 계속 지배해야 하고, 자신은 그것에 대해 계속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다. ⑩ 완벽한 해결(Perfect Solution) 인생에서 사람들이나 일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이고 모든 문제에는 언제나 바르고 완전한 해결책이 있다는 믿음이다.

위의 10가지 신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과도한 당위성이 강조되어 있다. 둘째, 인간의 내재적 가치보다는 외재적 가치에 치중되어 있다. 셋째, 자기신뢰성을 붕괴시킴으로서 자신의 효율적인 수행에 방해요인이 된다(황혜헌, 표경식, 1994).

Ellis(1962)는 서구 문화권에서 가장 일반적인 비합리적 신념들은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들 비합리적 신념은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는 도구(Irrational Belief Test)를 개발한 Jones(1968)에 의해 실증적, 경험적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은 개인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동안에 부모, 문화 등 가정과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아 학습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믿고 지속적인 다짐말(self-talking)을 통해서 더욱 강화하여 결국 정서 장애와 부적응 행동을 유발한다(김명훈, 정영운, 1991). 또한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보다 강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정신적 문제나 부적응적 행동을 유발시킨다(박재황, 1981). 기존의 선행연구를 보면 김현국(2003)은 비합리적 신념은 지연행동에도 밀접한 관련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비합리적 신념의 교정이 지연행동의 전환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편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비합리적 신념은 어려서부터 부모환경, 자라면서 여러 사회활동 속에서 학습되어 사고와 감정, 정서에 자동적인 사고로 나타나 건전한 인간활동에 비실제적이고 비윤리적인 신념, 자기파괴적, 독단적, 이기적, 비현실적, 모순적이며 과장되어 나타나 자신이 처한 상황마다 심리적 문제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비합리적 신념이 진로준비행동 전반에 걸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2) 역기능적 사고

Beck의 역기능적 사고도 Ellis의 비합리적 신념과 마찬가지로 타고 난다기 보다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었다가 일생생활 중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건들에 의해 활성화되어 부정적 사고, 우울, 불안,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 및 부적응 행동을 유발한다.

역기능적 사고란 상황에 관계없이 일정하며 성격의 인지적 구조의 내용을 반영하는 신념체계로서 심층적 수준의 사고내용이며, 자기 자신이나 타인 혹은 세상 일반에 대하여 절대 주의적이거나 완벽 주의적이며, 융통성이 없는 비현실적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상황의 다양성이나 가변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보다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신념이다(조용래, 1998).

Krumboltz(1994)는 사람들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신념에 따른 방식으로 진로 의사결정과 진로 관련 활동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만일 신념이 정확하고 건설적이라면 그 사람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 반면, 만일 신념이 부정확하며 자기 파괴적이면 그 사람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인지가 진로결정 및 진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Dodge(2001)은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학습 무능력 대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지각과 의미 있는 타인들의 지각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학 전공을 결정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결정한 학생들보다 더 높은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최현영, 2005, 재인용).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2002)은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결정 확신성과는 부적적으로 미결정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고, 특히 의사결정 혼란 요인이 진로미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최현영(2005)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사고는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진로 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역기능적인 진로사고를 많이 하고 있었고, 성별에 따라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국(2003)은 비합리적 신념은 지연행동에도 밀접한 관련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비합리적 신념의 교정이 지연행동의 전환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변인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선행연구들의 고찰하여 보고 비합리적 신념과 더불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악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관련 변인들의 연구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는 적은 편이다. 특히 비합리적 신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연구 결과가 유의하게 나온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부정적 변인인 진로장벽과 역기능적 사고에 대한 선행논문들까지 고찰하였다.

김경태(2002)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분석은 여러 경우로 나타나 부적 상관관계를 증명하였으나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연구 분석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그 의미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선옥(2004)은 불합리한 신념과 취업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대졸미취업자들의 불합리한 신념은 취업전략과 관련성을 가지며 또한 취업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요인으로써 비슷한 개념의 진로장벽과 역기능적 사고의 연구를 보면 김선중(2005)은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진로장벽을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아진다. 또한 희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많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김수리(2004)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고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낮은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된 준비행동을 수월하게 해나가고, 더 나은 진로태도성숙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비합리적 신념이나 역기능적 신념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진로준비행동 또는 진로태도 성숙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이 구체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밝히고 이를 수정함으로써 진로결정의 더 나은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과 형성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그리고 자기효능감 기대가 개인의 행동 선택과 수행 그리고 행위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행동과 행동변화상의 주요매개체라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가진 인지적 능력 이상으로 수행을 잘 예언할 수 있다. 따라서 강한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자기효능감은 완수경험, 대리 경험, 사회적 설득, 생리적이고 정서적인 상태의 네 가지 경험적 정보를 통해 획득되거나 수정된다.

첫째, 완수경험을 통해서 획득된다. 다양하고 많은 성공경험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과업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 형성되어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성공 경험은 효능감을 높이는 반면 실패는 효능감을 낮춘다. 그러나 만족된 성공을 통하여 자기 효능감이 강해지면 일시적으로 실패를 경험한다하더라도 자기효능감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노력에 의해 실패가 극복되면, 어려운 장애도 극복했다는 경험을 갖게 되어 효능감이 강화되고 지속성도 높아진다. 그러므로 실패가 개인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실패가 일어나는 전체적인 경험의 형태와 시기에 따라 다르다.

둘째, 대리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형성된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성공적인 수행과 실패한 수행을 관찰하면서 자신도 수행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타인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해지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자신의 능력도 낮게 평가하게 된다.

셋째, 주변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설득이다. 이것은 주변사람들이 개인에게 주는 격려의 말이나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의미한다. 한 개인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적인 경험이 아니라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되기 쉽고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

기 쉬운 면이 있어서 일시적인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전략을 시도 할 때 쉽게 사용될 수 있으며 성공적인 과업을 이루기에 충분한 정도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는 개인의 능력과 역할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의 판단을 통해 발생하는 생리적이고 정서적인 상태이다. 인간은 불안을 느끼거나 억압적이고 부담감을 주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서적 각성, 흥분상태를 일으킨다. 높은 각성 상태에서는 효과적인 수행을 할 수 없으며 자기효능감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각성의 원인을 자신의 무능함으로 돌리는 사람은 환경적 요소로 돌리는 사람보다 더 낮은 자기효능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 네 가지 근원들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 두개 이상의 근원이 동시에 작용하여 자기효능감이 형성된다.

Pajares(2002)는 자기효능감의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활동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의 질을 결정한다. 둘째, 활동 중에 장애를 만났을 때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를 결정한다. 셋째, 어려움을 예상하고 적극적이고 대비하게 하며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저항력, 준비도, 노력의 양과 질이 상승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경험하게 될 스트레스나 불안을 다루고 견디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결국,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달성하는 성취수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Hackett와 Betz(1981)는 성취행동, 진로결정 그리고 선택한 학문적 진로에서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진로발달모델에 자기효능감을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시켰고 직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제작하였다. 그들은 자기 효능감이 인간행위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언할 때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처음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은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이 성취행동, 진로결정 그리고 선택한 학문적 진로에서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진로발달모델에 자기효능감을 주요한 변인으로 포함시켜 성(性)과 관련지어 여성의 진로자기효능감을 밝히는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통적인 여성들의 직업에서는 여성들의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남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Taylor와 Betz(1983)는 일반적인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CDMSE)을 제안하여 특정 영역에 국한되었던 진로결정과 관련한 자기효능감을 일반적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였다.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척도는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 해결, 자기평가로 구성되어 있는 관련 변인들을 수량화 되어 있고 각 변인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자기평가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 욕구 등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직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직업정보는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직업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낸다. 셋째, 목표설정 은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를 자신 있게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미래계획은 진학,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은 진로상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가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Hackett와 Betz(1986)는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을 특별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자존감(Lent & Hackett, 1987), 진로탐색행동(Blustein, 1989)등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불안(Robbins, 1985), 진로미결정(Taylor & Betz, 1983) 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을 밝혔다(김민정, 2006, 재인용).

이은경(2001)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미결정이나 진로탐색활동, 진로태도(Luzzo, 1993), 여성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Foss & Slanelly, 1986), 성역할 자아개념(Arnold & Bye, 1989)과 유의미한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진로상담과 관련하여 폭넓게 사용되어져 왔다. 진로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해 낼 확률은 각 개인 스스로 자신에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한 신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진로의사결정, 진로탐색과 관련된 진로결정과정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에 대해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개인의 목표행동과 실제 진로관련행동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진로목표를 도달하기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상담과 관련하여 폭넓게 사용되어져 왔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목표행동과 실제 진로 관련행동으로 전환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관련 변인들의 연구

진로에 관련된 행동수행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Chjung(2002)미국 남부지역 대학의 졸업예정자 16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과 진로에 관련된 행동수행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이은혜, 2003, 재인용).

이러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되었다. 장기명(1999)은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고,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진미경(2000)은 대학생을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라 유형화한 다음 각 집단들과 특성불안, 통제소재, 진로의사결정효능감 등 심리적 변인간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여기서는 특별히 진로결정수준과 준비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성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여학생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명숙(2002)의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김수리(2004)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고 역기능적 사고가 낮은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된 준비행동을 수월하게 해 나가고, 더 나은 진로태도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은 높아지는 결과를 주고 있으며 성별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진로준비행동의 개념과 형성

진로준비행동은 인지나 정서의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말한다. 이는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행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김봉환(1997)에 의해서 진로분야의 필수적인 한 가지 탐구영역으로서 개념화가 시도되었다.

진로준비행동이 구체적인 행위 차원이라고 말한다면 이전의 연구로 진로준비행동과 가장 유사한 변인의 하나인 진로탐색에 대한 연구들 중 Berlyne(1965)은 진로탐색을 직업, 직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과 인식으로 규정하였고 탐색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을 탐색의 장소, 탐색의 방법, 탐색의 양 및 탐색의 초점으로 보았으며 정보의 원천은 ‘환경’과 ‘자기 자신’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Brown과 Heath(1984)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들은 미리 예측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기대(expectation), 준비(preparedness) 등의 세 가지이다. 이중에서 특히 ‘준비’는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구상, 그 같은 결과를 다루기 위한 전략의 개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적인 노력(behavioral efforts) 등을 요구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 데에 어느 정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진로를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일도 분명히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맞이하는 중요한 사건중의 하나이며, 진로선택을 미리 예견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행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김봉환, 1997, 재인용).

진로준비행동은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정보수집 활동이다. 이 활동에는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는 물론이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세계 관한 정보(현황, 전망, 입직 방법, 필수요건, 승진경로, 작업환경 등)도 포함된다. 이 같은 정보를 효율적이고 합리

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활동들을 진로준비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다. 자기가 목표한 직업에 입직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혹은 교재 등을 구입하는 것이다. 셋째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구와 상호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필요한 도구를 구입해 놓고도 시간과 노력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진로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김봉환, 1997).

김봉환이 연구대상을 사립대학생에만 국한 했던 데에 비해서 이제경(1997)은 조사대상을 일반대학생 집단으로 확대하여 위 연구 성과를 검증하였고, 유정숙(1998)은 대학생집단에게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남홍(2001)은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성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한 결과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진로준비행동이란 진로목표달성 과정에서 실제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행동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목표한 직업을 설정하고 자기 자신이 그 직업의 조건(취업의 조건 ; 응시자격 및 시험준비 등)을 위해 신체조건을 만들고, 자격증을 획득하고 시험을 대비한 공부를 하는 등의 실제적이고 구체행동을 진로준비행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은 어떠한 행동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즉, 방해요인으로 비합리적 신념을 지지요인으로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살펴볼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제주시 소재 종합대학인 C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379명(여 178, 남 201명)의 자료를 최종분석 하였다.

<표Ⅲ-1.> 연구대상

	구 분	N	백분율(%)
성별	여학생	178	47.0
	남학생	201	53.0
학년	2학년	83	21.9
	3학년	188	49.6
	4학년	108	28.5
계열	인문사회계열	149	39.3
	자연계열	196	51.7
	예체능계열	34	9.0
계		379	100.0

2. 검사도구

1) 비합리적 신념 검사

사회적 불안을 예측해 주는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Jones(1969)가 개발한 것으로 총 100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정훈과 이정운(1994)이 재구성한 비합리적 신념 검사(IBT)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8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 하위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 '대체로 그렇다'에 3점, '전적으로 그렇다'에 4점을 주고 채점 부호 반대 문항에 대해서는 이와 반대로 점수를 주어 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합리적 신념이 강함을 나타낸다.

각 하위변인에 해당하는 문항과 그에 따른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아래 표와 같으며, 최정훈과 이정운(1994)의 연구에서 대학생 623명(남-382명, 여-241명)을 대상으로 알아본 검사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Cronbach α 로 검증한 결과 .77 신뢰도를 얻었다.

<표Ⅲ-2> 비합리적 신념 검사지 구성

하 위 변 인	문 항 번 호
인정에 대한 요구	1, 10*, 19, 24*, 30*, 46*, 56, 64, 74*
개인적 완벽성	2, 11, 20*, 25*, 31, 39*, 47, 57, 65, 75*
비난 경향성	3, 12, 26, 32*, 48*, 58, 66*, 76*
파국화	4*, 13*, 27, 33*, 40*, 49*, 59*, 67, 77*
정서적 무책임감	5*, 14*, 41, 50*, 60*, 68*, 78*
과잉불안. 염려	6, 15*, 21, 34, 42*, 51, 69*, 79*
문제회피	7, 22, 28*, 35, 43*, 52, 70*, 80*
의존성	16, 23, 29, 36*, 44*, 53*, 61, 71*, 81*
무기력	8, 17, 37, 45*, 54, 62, 72, 82*
완벽한 해결	9, 18*, 38, 55*, 63, 73, 83*

* 채점부호 역산문항

2)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r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

본 연구에서는 진로자기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r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을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대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타당화 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CDMSES-SF는 5개 하위요인별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정말 자신 있다’ 4점, ‘꽤 자신 있다’ 3점, ‘거의 자신 없다’ 2점, ‘전혀 자신 없다’ 1점을 주었다.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조사대상자 37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2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은경(2001)은 중·고등·대학생 200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6 이다.

<표Ⅲ-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지 구성

하 위 변 인	문 항 번 호
자 기 평 가	5, 9, 14, 18, 22
직 업 정 보	1, 10, 15, 19, 23
목 표 선 택	2, 6, 11, 16, 20
미 래 계 획	3, 7, 12, 21, 24
문 제 해 결	4, 8, 13, 17, 25

3) 진로준비행동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김봉환(1997)이 개발하여 이명숙(2002)이 2문항을 추가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명숙(2002)은 최근 들어 인터넷 진로 정보사이트가 많이 생겨났고 대학교의 직업능력개발원 등 진로상담센터들이 활성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2문항을 추가하였다. 진로준비행동검사는 총 18개문항(4점척도)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김봉환(1997)은 사범대학생 293명으로 대상으로 한 검사의 신뢰도(Cronbach α)는 .86으로 나타났으며, 김남홍(2001)은 검사의 신뢰도(Cronbach α) .86 그리고 이명숙(2002)은 검사의 신뢰도(Cronbach α)가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7 이다.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에 의해 분석되었다.

첫째,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둘째,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에 대하여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에 대하여 학년별, 계열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F검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설계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연구대상 전체 (N=379)를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IV-1>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은 4년제 대학생들로 비합리적 신념에서는 개인적 완벽성의 평균이 23.56으로 가장 높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는 목표선택(14.09)에 대한 평균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표IV-1>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하위요인	M	SD
비합리적 신념	인정에대한욕구	23.56	2.76
	개인적완벽성	25.97	2.95
	비난경향성	20.94	2.78
	파국화	22.08	2.90
	정서적무책임감	14.93	2.29
	과잉불안염려	20.63	2.67
	문제회피	19.70	2.25
	의존성	22.09	2.62
	무기력	20.26	2.59
	완벽한해결	18.56	2.42
총 점		255.00	13.2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평가	13.91	2.04
	직업정보	13.42	2.01
	목표선택	14.09	2.12
	미래계획	13.36	2.19
	문제해결	13.36	1.91
총 점		99.00	8.12
진로준비 행동	총 점	72.00	8.49

1.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가설 1】.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수준은 낮을 것이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정에 대한 욕구, 개인적 완벽성, 비난경향성, 파국화, 정서적 무책임감, 과잉불안염려, 문제회피, 의존성, 무기력, 완벽한해결의 10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IV-2>와 같이 나타났다.

<표IV-2>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별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하위 변인	진로준비행동
인정에대한욕구	-.005
개인적완벽성	-.102*
비난경향성	-.123*
파국화	-.049
정서적무책임감	-.098
과잉불안염려	-.035
문제회피	-.195***
의존성	-.055
무기력	-.096
완벽한해결	.028
비합리적신념	-.142**

* : p<.05 , ** : p<.01 , *** : p<.001

위 <표IV-2>와 같이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그 중 개인적 완벽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r=-0.102$, $p<.05$), 비난 경향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r=-0.123$,

p<.05), 문제회피와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r=-0.195, p<.001)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비합리적 신념은 진로준비행동 간에 음의 상관관계(r=-0.142, p<.01)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문제회피, 비난경향성, 개인적 완벽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비합리적 신념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비합리적 신념을 독립변인으로 진로 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표IV-3>과 같이 실시하였다.

<표IV-3>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β	표준화 β	t	F	R ²
문제회피	-0.699	-0.185	-3.667***	9.704***	0.049
비난경향성	-0.322	-0.105	-2.081*		

* : p<.05 , *** : p<.001

<표 IV-3>을 보면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과의 관계에서 보면 문제회피와 비난경향성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하위요인 모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회피(β =-0.699, t=-3.667, p<.001), 비난경향성(β =-0.322, t=-2.081, p<.05) 순으로 나타나,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변인인 문제회피와 비난경향성이 높아지면 진로준비행동이 낮아지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학생들이 진로문제를 외면하다거나 회피하는 경향(β =-0.699)이 비난경향성(β =-0.322)보다 진로준비행동에 더 큰 방해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준비행동의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었으나 같은 의미의 역기능적진로사고와 관련한 김수리(2004)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회귀분석 결과 역기능적

진로사고 중 의사결정혼란이 부적 영향을 수행불안은 정적 영향관계 보였던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으로 문제회피와 비난 경향성이 부적 영향관계를 보임으로써 비합리적 신념이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위 【가설 1】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간에 관계

【가설 2】 .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높을 것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5가지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놓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IV-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분석

하위요인	진로준비행동
자기평가	.228***
직업정보	.221***
목표선택	.187***
미래계획	.226***
문제해결	.14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55***

*** : p<.001

위 <표IV-4>의 결과 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진로준비 행동과 통계적으로 모든 하위요인과 총점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그 중 자기평가($r=.228, p<.001$), 미래계획($r=.226, p<.001$), 직업정보($r=.221, p<.001$), 목표선택($r=.187, p<.001$), 문제해결($r=.141, p<.001$), 전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255, p<.001$)으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유형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표IV-5>와 같으며 진로결정 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을 6.8% 설명하고 있으며, F 값은 13.717이고, $p<.001$ 의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표IV-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β	표준화 β	t	F	R^2
자기평가	.657	.158	2.778**	13.717	.068
직업정보	.614	.145	2.556*		

* : $p<.05$, ** : $p<.01$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 중 자기평가($\beta=0.657, t=2.778, p<.01$)와 직업정보($\beta=0.614, t=2.556, 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진로준비에 대한 직업정보(표준화 $\beta=0.145$)보다 자기평가(표준화 $\beta=0.158$)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 중에서도 자기평가가 직업정보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문제 해결신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대학생들이 높게 가질수록 그들의 진로에 대해 미리 준비행동하고

맞서는 자세가 좀더 활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구성들이 자기탐색과 직업정보탐색을 통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과 같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의 선행은 자기를 탐색하고 직업정보를 파악하여 진로를 결정함이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남진(2003)의 선행연구를 보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명숙(2002)의 선행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정적 상관관계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와 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3.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가설 3】.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비합리적 신념은 낮을 것이다.

대학생들의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비합리적 신념의 10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IV-6>과 같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Ⅳ-6>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분석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인정에대한욕구	-0.119*	-0.114*	-0.163**	-0.136**	-0.174**	-0.179***
개인적완벽성	-0.166**	-0.03	-0.1	-0.158**	-0.135**	-0.150**
비난경향성	-0.044	0.014	0.014	-0.101	-0.088	-0.052
파국화	-0.272***	-0.116*	-0.307***	-0.312***	-0.225***	-0.314***
정서적무책임감	-0.205***	-0.161**	-0.275***	-0.173**	-0.071	-0.227***
과잉불안염려	-0.200***	-0.068	-0.172**	-0.211***	-0.162**	-0.207***
문제회피	-2.71***	-0.192**	-0.142**	-0.202***	-0.172**	-0.240***
의존성	-0.111*	-0.028	-0.089	-0.141**	-0.094	-0.118*
무기력	-0.95	-0.084	-0.055	-0.135**	-0.079	-0.114*
완변한해결	0.150**	0.028	0.167**	0.129*	0.091	0.144***
비합리적신념	-0.267***	-0.139**	-0.226***	-0.291***	-0.226***	-0.292***

* : p<.05 , ** : p<.01 , *** : p<.001

위 <표Ⅳ-6>를 보면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하위요인 중 파국화($r=-.314$), 문제회피($r=-.240$), 정서적 무책임감($r=-.227$), 과잉불안염려($r=-.207$), 인정에 대한 욕구($r=-.179$)와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개인적 완벽성($r=-.150$)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의존성($r=-.118$), 무기력($r=-.114$)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5$). 따라서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낮을 것이다.

연구결과 주목할 부분은 유독, 완벽한 해결($r=.144$)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p<.01$)를 보이고 있어 완벽한 해결이 높아질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아짐을 보여준다.

아래의 <표 IV-7>은 비합리적 신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비합리적 신념을 독립변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IV-7>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β	표준화 β	t	F	R ²
과국화	-0.633	-0.226	-4.495***	19.432***	0.172
문제회피	-0.695	-0.193	-4.044***		
정서적 무책임	-0.565	-0.160	-3.318**		
인정에 대한 욕구	-0.305	-0.104	-2.112*		

* : p<.05 , ** : p<.01 , *** :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보면, 문제회피($\beta=-0.695$, $t=-4.044$, $p<.001$)이고, 과국화($\beta=-0.633$, $t=-4.495$, $p<.001$)이고, 정서적 무책임감($\beta=-0.565$, $t=-3.318$, $p<.01$)이고, 인정에 대한 욕구($\beta=-0.104$, $t=-2.112$, $p<.05$)로 나타나,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변인 중 문제회피, 과국화, 정서적 무책임감, 인정에 대한 욕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변인인 과국화, 문제회피, 정서적 무책임감,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합리적 신념 중 문제회피는 앞서 본 진로준비행동에도 가장 큰 부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도 문제회피가 가장 큰 부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손경희(2003년)연구중 비합리적 신념과 심리성숙도의 상관 관계분석을 보면 정서적 무책임감이 긍정적 사고가 가장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듯이 비합리적 신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비합리적 신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과국화, 문제회피, 정서적 무책임감, 인정에 대한 욕구들로 인해 부적 영향을 받아 위 【가설

3] 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비합리적 신념을 독립 변인으로 두어 회귀 분석 결과 <표IV-8>와 같다.

<표IV-8> 비합리적 신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β	표준화 β	t	F	R ²
비합리적 신념	-0.091	-0.142	-2.788	7.773**	0.020

** : p<.01

위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비합리적 신념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의 비합리적 신념이 강하게 되면 진로준비 행동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독립 변인으로 두어 회귀분석 결과 <표IV-9>와 같다.

<표IV-9>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β	표준화 β	t	F	R ²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266	0.255	5.117	26.179***	0.065

*** : p<.001

위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5.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성별 차이

【가설 4】. 대학생들의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성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IV-10> 비합리적 신념에 따른 성별 차이분석

변인	성별	N	M	SD	t
인정에 대한 욕구	여	178	24.01	2.86	2.979**
	남	201	23.17	2.61	
개인적 완벽성	여	178	26.65	2.89	4.301***
	남	201	25.37	2.89	
비난경향성	여	178	21.42	2.72	3.185**
	남	201	20.52	2.76	
과국화	여	178	22.90	2.69	5.358***
	남	201	21.36	2.90	
정서적 무책임감	여	178	15.10	2.35	1.357
	남	201	14.78	2.24	
과잉불안염려	여	178	21.03	2.67	2.750**
	남	201	20.28	2.63	
문제회피	여	178	19.98	2.38	2.256*
	남	201	19.46	2.11	
의존성	여	178	22.56	2.54	3.284**
	남	201	21.68	2.63	
무기력	여	178	20.66	2.67	2.886**
	남	201	19.90	2.48	
완벽한 해결	여	178	18.47	2.39	-.703
	남	201	18.64	2.46	
비합리적 신념	여	178	212.77	13.11	5.838***
	남	201	205.16	12.26	

* : p<.05 , ** : p<.01 , *** : p<.001

먼저,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하위요인별 평균치 차이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위 <표IV-10>과 같다.

정서적 무책임감과 완벽한 해결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여학생의 평균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 비합리적 신념의 평균점수가 여학생(M=212.77)이 남학생(205.16)보다 높게 나타나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비합리적 신념이 높게 나타났다($t=5.838$, $p<.001$). 하위요인별로 보면 개인적 완벽성(여:M=26.65, 남:M=25.37, $p<.001$), 과국화(여:M=22.90, 남:M=21.36, $p<.001$), 인정에 대한 욕구(여:M=24.01, 남:M=23.17, $p<.01$), 비난경향성(여:M=21.42, 남:M=20.52, $p<.01$), 의존성(여:M=22.56, 남:M=21.68, $p<.01$), 무기력(여:M=20.66, 남:M=19.90, $p<.01$), 과잉불안염려(여:M=21.03, 남:M=20.28, $p<.01$)이고, 문제회피(여:M=19.98, 남:M=19.46, $p<.05$)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 무책임감, 완벽한 해결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완벽한 해결이 평균점수에서 유일하게 남학생(M=18.64)들이 여학생(M=18.47)들이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박애신(2005)이 중학생들이 비합리적 신념의 성에 따른 차이가 있음 연구한 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최현영(2005)은 대학생들이 성별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와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역기능적인 진로사고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아래의 <표IV-11>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성별로 그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이 전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보면, 여학생의 점수 평균은 66.83이고, 남학생의 점수 평균은 69.31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3.001$, $p<.01$). 하위요인별로 보면 점수차가 큰 미래계획(여:M=13.04, 남:M=13.65, $p<.01$), 목표선택(여:M=13.79, 남:M=14.36, $p<.01$), 자기평가(여:M=13.66, 남:M=14.13, $p<.05$), 문제해결(여:M=13.12, 남:M=13.57, $p<.05$), 직업정보(여:M=13.22, 남:M=13.60) 순으로 나타났으나 직업정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은경(2001)과 이명숙(2002)의 선행연구에서 보면, 성별과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떨어진다고 한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Ⅳ-1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따른 성별 차이분석

변 인	성별	N	M	SD	T
자기평가	여	178	13.66	1.90	-2.285*
	남	201	14.13	2.14	
직업정보	여	178	13.22	2.02	-1.833
	남	201	13.60	1.99	
목표선택	여	178	13.79	2.09	-2.639**
	남	201	14.36	2.11	
미래계획	여	178	13.04	2.07	-2.743**
	남	201	13.65	2.26	
문제해결	여	178	13.12	1.89	-2.267*
	남	201	13.57	1.9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여	178	66.83	7.93	-3.001**
	남	201	69.31	8.13	

* : p<.05 , ** : p<.01

진로준비행동을 성별로 그 차이를 알아본 아래의 <표Ⅳ-12>를 보면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보면, 여학생의 점수 평균은 43.35이고, 남학생의 점수 평균은 45.10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2.011, p<.05). 따라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Ⅳ-12>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성별 차이

변 인	성별	N	M	SD	T
진로준비행동	여학생	178	43.35	8.70	-2.011*
	남학생	201	45.10	8.25	

* : p<0.05

종합적으로 요약하자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은 비합리적인 신념이 높은 여학생들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남학생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 【가설 4】 모두를 지지하였다.

6.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학년별 차이

【가설 5】 .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학년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IV-13> 비합리적 신념에 따른 학년별 차이

구분		N	M	SD	F
비합리적 신념	2학년	83	210.67	13.10	2.295
	3학년	188	207.31	12.75	
	4학년	108	209.71	13.90	

위의 <표IV-13>는 학년별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평균치 차이분석 결과이다. 위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Scheffe's 사후분석결과, 2학년과 3학년은 유의수준5%(평균차=-2.758, $p<.05$)이고, 2학년과 4학년은 유의수준 0.1%(평균차=-5.364, $p<.001$)이고, 3학년과 4학년은 유의수준 5%(평균차=-2.606, $p<.05$)로 비합리적 신념은 2학년과 3학년, 2학년과 4학년, 3학년과 4학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위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신념이 학년별에 대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김현국(2003)은 비합리적 신념 중 비난 경향성이 4학년보다 1학년이 의존성은 1학년이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IV-1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따른 학년별 차이

구분		N	M	SD	F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학년	83	68.35	8.44	0.115
	3학년	188	68.23	8.02	
	4학년	108	67.83	8.11	

위의 <표IV-13>은 학년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평균치 차이분석 결과이나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IV-15>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학년별 차이

구분		N	M	SD	F
진로준비행동	2학년	83	41.36	7.62	9.851***
	3학년	188	44.14	8.09	
	4학년	108	46.75	9.13	

*** : p<.001

진로준비행동은 2학년 평균점수가 41.36, 3학년 평균점수가 44.14, 4학년 평균 점수가 46.75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9.851, p<.001).

이처럼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준비와 관련하여 학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위해 진로준비행동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 짐을 나타낸다. 또한 장선량(2003)의 선행연구에서는 학년수준에 따라 진로준비 행동은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모두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학년별 차이가 있는 것은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준비행동으로 부분적으로 위 【가설 5】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규명하고 그 영향을 밝혀,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행동의 과정을 이해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진로지도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비합리적 신념은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비합리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학년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하여 대학생들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독립변인으로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설정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대학생들의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수준은 낮을 것이다.

가설. 2.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수준은 높을 것이다.

가설. 3.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비합리적 신념은 떨어질 것이다.

가설. 4. 대학생들의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성(性)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대학생들의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학년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도 소재 종합대학인 C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대학생 379명(여 178, 남 201명)의 자료를 최종분석 하였다.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사용한 검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비합리적 신념검사는 Jones(1969)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정훈과 이정윤(1994)이 재구성한 비합리적 신념 검사(IBT)를 사용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감은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rking Self-Efficacy Scale : 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를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타당화 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검사에 이명숙(2002)이 두 문항을 추가한 것을 사용하였다.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정에 대한 욕구, 개인적 완벽성, 비난경향성, 과국화, 정서적 무책임감, 과잉불안염려, 문제회피, 의존성, 무기력, 완벽한해결의 10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중 개인적 완벽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r=-0.102, p<.05$), 비난 경향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r=-0.123, p<.05$), 문제회피와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r=-0.195, p<.001$)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비합리적 신념은 진로준비행동 간에 음의 상관관계($r=-0.142, p<.01$)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문제회피, 비난경향성, 개인적 완벽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비합리적 신념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비합리적 신념을 독립변인으로 진로 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과의 관계에서 보면 문제회피와 비난경향성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하위요인 모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회피($\beta=-0.699, t=-3.667, p<.001$)이고, 비난경향성($\beta=-0.322, t=-2.081, p<.05$)로 나타나,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변인인 문제회피와 비난경향성이 높아지면 진로준비행동이 낮아지는데 영향을 준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학생들이 진로문제를 외면하다거나 회피하는 경향($\beta = -0.699$)이 비난경향성($\beta = -0.322$)보다 진로준비행동에 더 큰 방해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준비행동의 연구가 거의 찾을 수 없었으나 같은 의미의 역기능적진로사고와 관련한 김수리(2004)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준비행동간의 회귀분석 결과 역기능적 진로사고 중 의사결정혼란이 부적 영향을 수행불안은 정적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김현국(2003)은 비합리적 신념 중 과잉불안염려, 문제회피, 인정에 대한 욕구, 정서적 무책임감, 무기력이 지연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간에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5가지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놓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진로준비행동과 통계적으로 모든 하위요인과 총점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그 중 자기평가($r = .228, p < .001$), 미래계획($r = .226, p < .001$), 직업정보($r = .221, p < .001$), 목표선택($r = .187, p < .001$), 문제해결($r = .141, p < .001$), 전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 = .255, p < .001$)으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유형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진로결정 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을 6.8% 설명하고 있으며, F 값은 13.717이고, $p < .001$ 의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eta = 0.266, t = 5.117, p < .001$)으로 나타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 중 자기평가($\beta = 0.657, t = 2.778, p < .01$)와 직업정보($\beta = 0.614, t = 2.556, p < .05$)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진로준비에 대한 직업정보(표준화 $\beta = 0.145$)보다 자기평가(표준화 $\beta = 0.158$)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 중에서도 자기평가와 직업정보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문제 해결신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대학생들이 높게 가질수록 그들의 진로에 대해 미리 준비행동하고 맞서는 자세가 좀더 활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구성들이 자기탐색과 직업정보탐색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같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의 선행은 자기를 탐색하고 직업정보를 파악하여 진로를 결정함이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남진(2003)의 선행연구를 보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명숙(2002)의 선행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정적 상관관계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와 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대학생들의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비합리적 신념의 10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하위요인 중 과국화($r=-.314$), 문제회피($r=-.240$), 정서적 무책임감($r=-.227$), 과잉불안염려($r=-.207$), 인정에 대한 욕구($r=-.179$)와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개인적 완벽성($r=-.150$)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의존성($r=-.118$), 무기력($r=-.114$)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5$). 따라서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낮을 것이다.

연구결과 주목할 부분은 유독, 완벽한 해결($r=.144$)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p<.01$)를 보이고 있어 완벽한 해결이 높아질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아짐을 보여준다.

비합리적 신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비합리적 신념을 독립변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보면, 문제회피($\beta=-0.695$, $t=-4.044$, $p<.001$)이고, 과국화($\beta=-0.633$, $t=-4.495$, $p<.001$)이고, 정서적 무책임감($\beta=-0.565$, $t=-3.318$, $p<.01$)이고, 인정에 대한 욕구($\beta=-0.104$, $t=-2.112$, $p<.05$)로 나타나,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변인 중 문제회피, 과국화, 정서적 무책임감, 인정에 대한 욕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변인인 과국화, 문제회피, 정서적 무책임감,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합리적 신념 중 문제회피는 앞서본 진로준비행동에도 가장 큰 부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도 문제회피가 가장 큰 부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넷째,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비합리적 신념을 독립 변인으로 두어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비합리적 신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의 비합리적 신념이 강하게 되면 진로준비행동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독립 변인으로 두어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하위요인별 평균치 차이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정서적 무책임감과 완벽한 해결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여학생의 평균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 비합리적 신념의 평균점수가 여학생($M=212.77$)이 남학생(205.16)보다 높게 나타나 남학

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비합리적 신념이 높게 나타났다($t=5.838, p<.001$). 하위요인 별로 보면 개인적 완벽성(여:M=26.65, 남:M=25.37, $p<.001$), 파국화(여:M=22.90, 남:M=21.36, $p<.001$), 인정에 대한 욕구(여:M=24.01, 남:M=23.17, $p<.01$), 비난경향성(여:M=21.42, 남:M=20.52, $p<.01$), 의존성(여:M=22.56, 남:M=21.68, $p<.01$), 무기력(여:M=20.66, 남:M=19.90, $p<.01$), 과잉불안염려(여:M=21.03, 남:M=20.28, $p<.01$)이고, 문제회피(여:M=19.98, 남:M=19.46, $p<.05$)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 무책임감, 완벽한 해결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완벽한 해결이 평균점수에서 유일하게 남학생(M=18.64)들이 여학생(M=18.47)들이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박애신(2005)이 중학생들이 비합리적 신념의 성에 따른 차이가 있음 연구한 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최현영(2005)은 대학생들이 성별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와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역기능적인 진로사고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이 전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보면, 여학생의 점수 평균은 66.83이고, 남학생의 점수 평균은 69.31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3.001, p<.01$). 하위요인별로 보면 점수차가 큰 미래계획(여:M=13.04, 남:M=13.65), 목표선택(여:M=13.79, 남:M=14.36), 자기평가(여:M=13.66, 남:M=14.13), 문제해결(여:M=13.12, 남:M=13.57), 직업정보(여:M=13.22, 남:M=13.60) 순으로 나타났다. 이은경(2001)과 이명숙(2002)의 선행 연구에서 보면, 성별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떨어진다고 한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을 성별로 그 차이를 알아보면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보면, 여학생의 점수 평균은 43.35이고, 남학생의 점수 평균은 45.10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2.011, p<.05$). 따라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과 관련된 차이분석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자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은 비합리적인 신념이 높은 여학생들 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남학생인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도의 학년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먼저 학년별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평균치 차이분석 결과이다. 위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Scheffe's 사후분석결과, 2학년과 3학년은 유의수준5%(평균차=-2.758, $p<.05$)이고, 2학년과 4학년은 유의수준 0.1%(평균차=-5.364, $p<.001$)이고, 3학년과 4학년은 유의수준 5%(평균차=-2.606, $p<.05$)로 비합리적 신념은 2학년과 3학년, 2학년과 4학년, 3학년과 4학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위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신념이 학년별에 대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김현국(2003)은 비합리적 신념 중 비난 경향성이 4학년보다 1학년이 의존성은 1학년이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평균치 차이분석 결과이나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준비행동은 2학년 평균점수가 41.36, 3학년 평균점수가 44.14, 4학년 평균점수가 46.75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9.851$, $p<.001$). 이처럼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준비와 관련하여 학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위해 진로준비행동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짐을 나타낸다. 또한 장선량(2003)의 선행연구에서는 학년수준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은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비합리적 신념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인 긍정적인 신념을 높이는 것이 좋으며 그중에서 자기평가와 직업정보에 더 큰 영향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합리적 신념 중 문제회피와 비난 경향성, 개인적 완벽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방해하는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하위요인별 영향을 갖고 대학생들의 진로상담에 적용한다면 진로상담의 더욱 증대 될 것이다.

2. 결론

본 연구의 목적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비합리적 신념을 높게 지각하는 대학생들은 진로준비행동이 낮아졌으며 그 하위요인 중 문제회피나 비난경향성은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낮아지게 하였다. 즉, 어려움이나 책임을 피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두렵거나 어려운 일을 지나치게 피하려는 학생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더욱 낮아진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많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높아진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 중에서도 자기평가와 직업정보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문제 해결신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대학생들이 많이 가질수록 그들의 진로에 대해 미리 준비행동하고 맞서는 자세가 좀더 활동적이다. 기존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구성들이 자기탐색과 직업정보탐색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같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의 선행은 자기를 탐색하고 직업정보를 파악하여 진로를 결정함이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남진(2003)의 선행연구를 보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명숙(2002)의 선행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정적 상관관계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와 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비합리적 신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는 부적 영향을 주지만 자기효능감에 대해 모든 하위변인이 부적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 그중 완벽한 문제해결에서는 정적인 상관을 보여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국(2003)의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신념 중 과잉불안염려, 문제회피, 인정에 대한 욕구, 정서적 무책임감, 무기력이 지연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수리(2004)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회귀분석 결과 역기능적 진로사고 중 의사결정혼란이 부적 영향을, 수행불안은 정적 영향 관계를 보여주듯이 대학생들 자신들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행동계획, 즉 당면의 문제를 비난하면서 회피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의사결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진로준비행동을 통해 더 나은 진로성숙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남, 여 성별에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비합리적 신념인 경우 여학생이 더 높게 지각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남학생들이 많다. 이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남학생들보다 비효율적인 정서를 함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은경(2001)과 이명숙(2002)의 선행연구에서도 보면, 성별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떨어진다고 한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넷째, 진로준비행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위한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이 적극성들을 볼 수 있다. 또한 김봉환(1997), 김경태(2002), 장선량(2003)의 선행연구에서도 학년수준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은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어 이 가설을 더욱 증명하고 있으며 각 대학교에서는 졸업을 막바지에 둔 4학년만을 위한 진로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별 단계에 맞는 진로지도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 대학생이 좀더 합리적으로 진로를 탐색 결정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을 고려하여 진로에서 겪는 어려움 및 방해요인들을 지각시키고 이를 위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즉, ‘차별적 진단과 차별적 처지’ (김봉환, 1997)라는 연구관점을 재증명한 것으로 앞으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줄 것이다.

3. 제언

끝으로,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내 한 대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상의 폭을 넓혀 비합리적 신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혀낸 비합리적 신념의 대학생들의 신념체계를 수정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진로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남여공학 대학교인 경우 진로지도를 통합적으로 시키기 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특이성을 살린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여성인 경우 개인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성공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해 긍정적 사고와 미래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한계로 비합리적 신념 수준과 하위요인별과 관련된 특이성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다음 연구에서는 좀 더 세분화된 연구로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할 수 있는 연구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태(2002) 특성불안과 비합리적 신념이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6).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봉환 · 김병석 · 정철영(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수리(2004).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현국(2003). 비합리적 신념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애신(2005) 중학생의 비합리적 신념, 자기존중감과 발표불안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경희(2003).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심리성숙과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령(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미옥(2004)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열등감의 관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 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pp. 127-136.

- 이명숙(2002).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 지각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연미(2002). **대학생의 진로발달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이장호(1989). **상담심리학 입문**. 박영사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2002).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pp401-414.
- 이형득외(1986). **상담의 이론적 접근**. 형설출판사.
- 조현준, 조현재(1996).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시그마프레스.
(Corey, G, 원서1991년 발행)
- 최재경(2004). **직업전문학교 훈련생들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선옥(2004). **대졸미취업자의 불합리한 신념이 취업전략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경자(1993). **정신건강적 사고: 합리적 생활안내서**. 이문출판사
(Ellis, A. & Harper,R.A., 원서 1975년 발행)
- 황혜원, 표경식(1994). **강박장애와 비합리적 신념**. **중앙의학**. 59. pp12-15
- Abrams, M., & Ellis A.(1994). Ration-Emotive behavior therapy in the treatment of stres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22, 39-50
- Bandura, A. (1977). Self_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 Schunk, D. H.(1981). Cultivating comperence, self_efficacy and intrinsic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86-598.
- Bandura, A. (1986). *Socal Func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intice-Hall.
- Betz, N. E., & Luzzo, D. A. (1996). Career assessment and the Career

-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313-328.
- Betz, N. E., & Vu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r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179-189.
- Brown, S. D. & Heath, L.(1984). Coping with critical life events: An integrative-behavioral model for research and practice.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pp.545-578). New York: Wiley.
- Blustien, D. L, Ellis, M. V., & Devenis, L. E.(198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wo-dimensional model of the commitment to career choices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3), 342-378.
- Blustien, D. L(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Vocational Behavior*, 35, 194-203
- Ellis, A.(1962).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oy. New York: *Lyle Stuart and Citadel Books*
- Ellis, A.(1995). Thinking processes involved in irrational beliefs and their disturbed consequences. *Journal of Congnitive Psychology*, 9, 105-116
- Ellis, A.(1999). Why rational-emotion therapy to ration emotive behavior therapy?. *Psychotherapy*, 36, 154-159
- Ellis, A. & Grieger, R.(1979), *handbook of rational emotive therapy*.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ckett, G., & Lent, R. M. (1992). Theoretical advances and current in counseling psychology. In S. D. Brown & R. W. Lent, Jr(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New York.; Wiley.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 Jones, R. G. (1968). *The factored measure of Ellis' irrational belief system with personality and maladjustment correlates*. Ann Arbor : Michigan University Microfilms, Inc
- Jones, W. H., & Russell, D. W.(1982). The social reticence scale : A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 629-631
- Lent, R. W., Brown, S. D., & Larkin, K. C. (1984). Relation of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academic achievement and persis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356-363.
- Lent, R. W., Brown, S. D., & Larkin, K. C. (1987). Comparison of three theoretically derived variables in predicting and consequence thin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293-298.
- Lent, R. W., & Hackett, G. (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347-382.
- O'Hara, M. M., & Tamburri, E, (1986). Coping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anxie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255-264.
- Osipow, S. H. (1999). Assessing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5, 147-154.
- Osipow, S. H., & Carney, C. G., Winter, J., Yanico, B., & Koschier, M.(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rev.)*. Columbus, OH: Marsthon Consulting and Press.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Taylor, K. M. & Popma, J. (1990).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Aslience, Locus of Control,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9, 17-31.

<Abstract>

Influence of Irrational Conviction and Self-Efficacies in Career Decision on Behaviour of Career Preparation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KIM, Mi-ran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soo

A purpose of this study¹⁾ is to examine influences of irrational convictions and self-efficacies of university students in a career decision on a behaviour of career preparations.

Following questions are to be looked into,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1. How irrational convictions can be influential to the behaviour of career preparations?
2. How self-efficacies in the career decision can be influential to the behaviour of career preparations?
3. How irrational convictions can be influential to the self-efficacy in the career decision?
4. Is there any difference in a gender in the irrational conviction and the self-efficacy in the career decision?
5. Is there any difference according to departments or academic years in the irrational conviction and the self-efficacy in the career decision?

To go over these questions, 397 university students in Jeju Island were participated

1)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7.

in the research with scales of irrational convictions, self-efficacies in career decision, a behaviour of career preparation. Also, a statistic, a correlation analysis, and a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by using SPSS 12.0 program.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highly recognizing the irrational conviction show less behaviour of career preparation. Also, higher avoidance of problems or tendency of criticism is, low levels of a behaviour of career preparation, among sub-categorized factors. In other words, students who have wrong conviction that it is easier to avoid difficulties or responsibilities and students who tend to ignore the fear and difficulties show low levels of behaviour of career preparation.

Also, higher self-efficacies in career decision is, higher levels of a behaviour of career preparation. Most influential factors on the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are the self-estimation and the job information. Students having higher self-efficacies in career decision that is a problem solving conviction tend to be more active in preparing and facing their career. It shows that conventional career guide program became a needed education and guide through self-explorations and career information search that are required in a behaviour of career preparation, as in the old saying "In the practical art of war, the best thing of all is to take the enemy's country whole and int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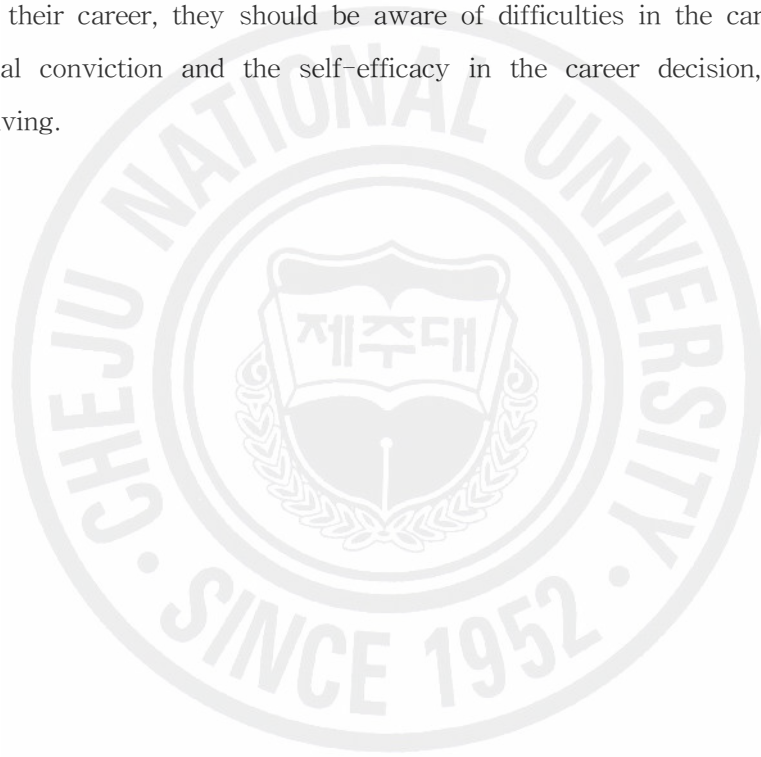
Second, although irrational conviction gives negative influence on the self-efficacy in the career decision, not all of sub-variables give negative influences on the self-efficacy. Some of the sub-variables may become a catalyst which can vitalize the behaviour of career preparation, since it shows a static relationship in a perfect problem solving. Students will experience a growth in career decision when the behaviour of career preparation is performed from their individual decision making rather than criticizing and avoiding problems that they have faced.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between male and female in factors such as the irrational conviction, the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the behaviour of career preparation. Female students tend to recognize more in irrational convictions, and male students tend to recognize more in self-efficacies in career

decisions, which means that male students have inefficient thoughts in behaviour of career preparation than female students.

Fourth, students in a higher academic year have more behaviour of career preparation, which shows that the students are active in their behaviour in career preparation to be ready for a labor market. It is necessary that not only a career guide for the final year students is conducted but also a career guide for each year students should be conducted first.

As a result of the study, in order for students to rationally search, decide, and prepare for their career, they should be aware of difficulties in the career considering the irrational conviction and the self-efficacy in the career decision, and focus on problem solving.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가장 큰 걱정거리인 진로결정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해 보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옳고 그른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소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하신 설문지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내용에 대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오직 학문적인 연구로 사용이 됩니다.

아울러 한 문항에 하나 이상을 답하시거나 빠뜨린 답이 많은 경우 설문지는 무효가 되므로 한 문항에 하나의 답만 작성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6년 1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김미란 드림

● 학생의 학년은?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 학생의 성별은 ?

- ① 여 ② 남

● 학생의 학과 계열은?

-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 ③ 자연계열 ④ 예체능계열

● 1. 자신을 잘 나타내주는 정도에 따라 V표를 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1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2	나는 무엇이든지 실패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1	2	3	4
3	나쁜 사람은 나쁜 결과를 당해야 한다.	1	2	3	4
4	나는 일어난 일들을 보통 초연하게 받아들인다.	1	2	3	4
5	자기가 마음먹기만 하면 어떤 상황하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	1	2	3	4
6	나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1	2	3	4
7	나는 대개 중요한 결정들을 미루곤 한다.	1	2	3	4
8	타고난 천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1	2	3	4
9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올바른 방법이 있다.	1	2	3	4
10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존중받는 것을 좋아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	1	2	3	4
11	나는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은 피해버린다.	1	2	3	4
12	너무나 나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받아야할 벌을 피하고 있다.	1	2	3	4
13	나는 좌절했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는다.	1	2	3	4
14	사람들은 상황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의해 괴로움을 느낀다.	1	2	3	4
15	나는 미래의 예기치 않은 위협에 대해서는 거의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1	2	3	4
16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권위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한다.	1	2	3	4
17	과거의 영향을 극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1	2	3	4
18	어떠한 것에도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	1	2	3	4
19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기를 바란다.	1	2	3	4
20	나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경쟁하려고 신경 쓰지 않는다.	1	2	3	4
21	나는 종종 걱정거리가 있으면 마음이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	1	2	3	4
22	나는 내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피한다.	1	2	3	4
23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외부의 힘을 필요로 한다.	1	2	3	4
24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1	2	3	4
25	나는 어떤 일에 성공하는 것이 좋지만,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1	2	3	4
26	도덕적이지 못한 것은 강력히 처벌받아야 한다.	1	2	3	4
27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 종종 괴로움을 느낀다.	1	2	3	4
28	나는 대개 가능한 빨리 결정을 내린다.	1	2	3	4
29	나에게는 내가 매우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다.	1	2	3	4
30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의 문제다	1	2	3	4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31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1	2	3	4
32	나는 다른 사람의 나쁜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1	2	3	4
33	나는 대개 내가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 것들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한다.	1	2	3	4
34	나는 운에 맡기고 모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1	2	3	4
35	맘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1	2	3	4
36	나는 내 힘으로만 일어서길 원한다.	1	2	3	4
37	만약 내가 과거에 다른 경험을 가졌더라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1	2	3	4
38	모든 문제에는 정확한 해결책이 있다.	1	2	3	4
39	나는 어떤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일 자체를 즐긴다.	1	2	3	4
40	어떤 일이 나를 괴롭히면 나는 그것을 무시한다.	1	2	3	4
41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덜 행복해질 수 있다.	1	2	3	4
42	나는 미래에 대해 거의 불안해하지 않는다.	1	2	3	4
43	나는 일들을 거의 미루지 않는다.	1	2	3	4
44	내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	1	2	3	4
45	과거의 경험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46	나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나의 진정한 욕구는 아니다	1	2	3	4
47	어떤 일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힌다	1	2	3	4
48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1	2	3	4
49	나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그런 후에는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50	아무것도 그 자체만으로 당황하게 되지는 않는다. 단지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1	2	3	4
51	나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한다.	1	2	3	4
52	나는 내키지 않는 하찮은 일을 하기가 어렵다.	1	2	3	4
53	나는 다른 사람이 내일에 대해 결정 내려 주는 것을 싫어한다.	1	2	3	4
54	우리는 저마다 개인의 과거사에 얽매어 있다.	1	2	3	4
55	어떤 일에 대한 이상적인 해결책을 드물다.	1	2	3	4
56	나는 종종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이정하고 수용해줄 것인가에 대해 걱정한다.	1	2	3	4
57	실수를 하면 나는 당황스럽다.	1	2	3	4
58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 에게 똑같은 일이 닥친다는 것은 부당하다	1	2	3	4
59	나는 인생을 아주 쉽게 쉽게 살아간다.	1	2	3	4
60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달갑지 않은 일일지라도 부딪쳐 헤쳐 나가야 한다.	1	2	3	4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 그렇지 않다	대체 그렇다	전적 그렇다
61	나는 남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다.	1	2	3	4
62	일단 어떤 것이 당신의 인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1	2	3	4
63	완벽한 해결책보다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낫다.	1	2	3	4
64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	1	2	3	4
65	나는 종종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매우 성이 난다.	1	2	3	4
66	나는 대개 나에게 잘못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1	2	3	4
67	나는 책임지는 것을 싫어한다.	1	2	3	4
68	아주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1	2	3	4
69	나는 죽음이나 핵전쟁과 같은 문제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70	사람들은 극복해야할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 도전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1	2	3	4
71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싫어한다.	1	2	3	4
72	사람들은 결코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없다.	1	2	3	4
73	나는 원칙대로 일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74	비난받는 것은 싫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당혹스럽지는 않다.	1	2	3	4
75	나는 내가 잘 해낼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해서 두렵지 않다.	1	2	3	4
76	행위가 나쁠지라도 사람은 나쁘지 않다.	1	2	3	4
77	나는 다른 삶들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 좀체로 당황하지 않는다.	1	2	3	4
78	자기 불행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1	2	3	4
79	갓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을 계획하는 나 자신을 종종 발견한다	1	2	3	4
80	필요하다면 그 일이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한다.	1	2	3	4
81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행복에 대해 낮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을 안다.	1	2	3	4
82	나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1	2	3	4
83	이상적인 환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1	2	3	4

● 2.자신을 잘 나타내주는 정도에 따라 V표를 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자신없다	거의 자신없다	꽤 자신있다	정말 자신있다
1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 도서관에서 정보를 찾아본다.	1	2	3	4
2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부적인 전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1	2	3	4
3	향후 5년간 자신의 목표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1	2	3	4
4	전공과 관련된 학업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1	2	3	4
5	자신의 능력을 명확하게 평가한다.	1	2	3	4
6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1	2	3	4
7	내가 선택한 전공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1	2	3	4
8	좌절하더라도 끝까지 목표하는 전공 또는 직업을 위해 노력한다.	1	2	3	4
9	내게 맞는 직업을 결정한다.	1	2	3	4
10	관심 있는 직업의 향후 10년간 고용동향을 알아낸다.	1	2	3	4
11	희망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진로를 선택한다.	1	2	3	4
12	이력서를 잘 준비한다.	1	2	3	4
13	선택한 전공이 마음에 안들 경우 전공을 바꾼다.	1	2	3	4
14	직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1	2	3	4
15	원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에 대해 알아낸다.	1	2	3	4
16	진로를 결정한 후에는 그 결정이 옳고 그름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17	선택한 직업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직업으로 바꾼다.	1	2	3	4
18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1	2	3	4
19	관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1	2	3	4
20	내 흥미나 관심에 맞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한다.	1	2	3	4
21	원하는 직업이나 관련 있는 고용주나 회사, 혹은 기관을 찾아낸다	1	2	3	4
22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명료하게 정의한다.	1	2	3	4
23	대학원이나 전문교육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낸다.	1	2	3	4
24	취업 면접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	1	2	3	4
25	원하는 전공 또는 직업을 얻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합리적인 대안이나 다른 진로를 알아낸다.	1	2	3	4

● 3.자신을 잘 나타내주는 정도에 따라 V표를 해주세요.

번호	문항	매우 그렇다	다소 그런편이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은편이다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1	2	3	4
2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1	2	3	4
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1	2	3	4
4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릿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 보았다.	1	2	3	4
5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혹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팸플릿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 보았다.	1	2	3	4
6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그 같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1	2	3	4
7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프로그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시청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다.	1	2	3	4
8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1	2	3	4
9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1	2	3	4
10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적이 있다.	1	2	3	4
1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적이 있다.	1	2	3	4
12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진로지원실 또는 카운슬링 또는 리더십센터 등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1	2	3	4
1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있다.	1	2	3	4
14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로)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1	2	3	4
15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준비를 하고 있다.	1	2	3	4
16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1	2	3	4
17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정보,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18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